전주 미래 이끌 청년들과 소통 나서

시, '청춘살롱: 청년들의 잡(job)담회' 개최… 우범기 시장·경제인 멘토들과 진로·미래 등 고민 나눠

전주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과 함께 진로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시는 18일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오현성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센터장, 전주지역 대학생,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청춘살롱: 청년들의 잡(job)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강연 △참석 내빈 축사 △라운드 토크 △브런치 살롱 △우수 참가사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라운드 토크 시간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큰별 텔로스 대표, 이동원 액티부키 대표, 봉준일 더스크 대표가 단상멘토로 참여해 사전 및 현장에서 수집된 대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는 18일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오현성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센터장, 대학생,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청춘살롱: 청년들의 잡(job)담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브런치 살롱은 테이블에 배치된 지역 경제인 멘토와 관심 분야가 같은 대학생들이 브런치를 함께 나누며, 진로와 취업, 창업 등 진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들의 미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지역 내 청년 계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진로·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전주가 청년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년들이 다방면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청춘살롱이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더 넓게 펼칠 기회가 됐길 바라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해 강한 경제 전주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평화동 문화드림축제' 열린다

전주시, 21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지시제 생태공원서 개최

침체된 전주지역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소비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1일 평화동 지시제 생태공원에서 '제5회 상반기 골목상권 가족문화 드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발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와 체험, 문화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날 축제는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상인회장과 지역 인사의 축사, 전문MC의 레크리에이션, 지역예술단체의 공연, 초대가수 무대 공연 등으로 포문을 열면서 행사 말미에는 경품추첨과 미술대회 시상도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평화동 드림축제에는 △킷사무루카페 △예뻐꽃방 △KT평화점 △왕뚜껑삼겹살 △산마을오리정 △지니스안경집 △치킨신드롬 △팔공가맥 △타이어테크 △은설노래방 △다온 한우 △정가네 떡집 △정원콩나물 △월미순대 △파리바게트 △한영철물공구 △영앤영스크린골프 △낙지마당 △모악골 △크리스피크림도넛 지역상점가 20개 점포가 직접 참여하는 할인행사 및 서비스 제공 부스가 운영된다.

또 풍선아트와 지역특화상품 시식 등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드림캐처 만들기와 컬러링북 체험, 주민 참여 부스 등 20여 개 홍보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속되며, 시는 이번 평화동 축제에 이어 오는 6월 28일에는 원도심 객사길 일원에서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드림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모색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합동토론회 열고 개선 방안 등 논의

전주시와 청소 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8일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5층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 시의원, 환경관리원 노동조합,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 민관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와 16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 처리 예산의 지속적 증가와 시민의식 변화,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전주시 청소행정의 구조와 주요 정책 방향,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대시민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인 강영덕 한국공공관리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은 전국 지자체의 사례와 더불어, 청소행정의 공공성 확보 및 민간 위탁의 적정성 등을 되짚으며 전주시 청소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임경진 전주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세훈 엠엔에스지속가능연구소장과 정선숙 시민행동 21 사무처장, 김정명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태현 서신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세훈 엠엔에스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청소 행정은 단순위탁의 문제가 아닌 시민 생활 전반과 맞닿아 있는 공공정책"이라며 "배출-수거-처리 전과정의 통합적 관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선숙 시민행동21 사무처장은 현장의 민원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한 뒤, "주민참여 감시체계와 청소시스템 전반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명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권역별책임제 도입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민 민원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태현 서신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제안사항들을 소개한 뒤, 현장 중심의 청소 행정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권희성 기자

효자4동 자율방재단, 안전한 여름나기 만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자율방재단(단장 이진열)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자율방재단 단원들은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선제적으로 폭염에 대비하고, 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 등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관내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기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폭염시 기상상황 수시 확인하기, 물 많이 마시기,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이나 작업 자제하기, 냉방기 사용시 냉방병 예방방법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자율방재단 단원들은 침수 피해 예방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수시로 관내 우수받이를 점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청렴 한마디 다짐 릴레이 챌린지' 돌입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18일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청렴 한마디 다짐 릴레이 챌린지'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릴레이는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갑질 근절, 부패 척결 등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기획됐다.

챌린지는 올해 11월까지 매월 3~4명의 의원이 참여해 청렴 명언이나 고사성어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SNS 게시 등 공유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첫 주자로는 남관우 의장을 비롯해 최주만 부의장, 김원주 운영위원장이 나서 세수봉직(洗手奉職, 손을 씻고 공직에 봉사한다), 신의(信義, 믿음과 의리),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의 청렴 문구를 들고 릴레이에 참여했다.

남관우 의장

최주만 부의장

김원주 운영위원장

남관우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투명성과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의원 모두가 청렴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덕진구, 우수 사회복무요원 12명 표창 수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지난 17일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수 사회복무요원 12명을 선정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 사회복무요원은 1년 이상 덕진구에서 복무하며 친절·선행 행위 및 성실 복무 등으로 근무태도가 우수한 요원들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수행자로서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선정했다.

우수 사회복무요원 12명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특별휴가 5일이 주어졌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동료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권희성 기자